

젓소고기 합당한 대우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제도보완과 정책지원이 급선무

김 남 용
본회 전무이사

1. 머리말

대도시 그 중에서도 서울시민들은 젓소고기를 주로 먹고 있다. 즉 한우고기라고 생각하고 먹는 쇠고기가 대부분이 젓소고기다. 그러면서도 젓소고기 하면 젓을 짜다가 늙어서 젓소로서 가치가 없어서 도살된 노폐우의 고기를 연상한다. 그러므로 젓소고기를 맛있다고 먹고 있으면서도 젓소고기 하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쇠고기를 먹고 있는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젓소고기를 맛있게 현재 먹고 있다. 그런데 젓소고기라고 하면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이것이 문제이다.

비육된 숫소고기, 처녀소의 고기, 그리고 비육이 잘된 사고우, 그리고 늙은 젓소일지라도 비육이 잘된 쇠고기는 쇠고기로서 맛도 있고 또 하자가 없다. 그런데 극히 일부의 여원 노폐우로 인하여 전체의 젓소고기를 노폐우고기로 취급하니 문제다. 수입쇠고기의 물량은 매년 증가토록 되었으며 수요자가 쇠고기의 종

류, 품질을 정하여 수입하는 SBS제도에 의한 수입량과 업체도 매년 늘어나게 되었다. 결국은 질 좋은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으며 막대한 홍보비를 써가며 수입쇠고기 홍보를 하게되면 수입쇠고기가 국민들의 입에 빨리 적응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젓소고기는 국내 시장에서 받을 내밀기가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젓소, 숫소비육우, 노폐우 그리고 젓소, 송아지값이 곤두박질하여 낙농경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수입육이 국내 시장에 정착되기 전에 젓소고기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여야겠다는 것이다.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은 그간 유통업계에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인데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의 등장 그리고 슈퍼와 백화점에서 수입육의 일부를 한우로 둔갑판매 하던 것을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 취급직원들을 구속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슈퍼와 백화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일자 슈퍼와 백화점에서



부정육 유통을 자제하고 또 일반 정육점에서도 부정육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외면하자 물을 먹인 고기등 부정육의 취급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젓소고기가 도매시장에서는 젓소고기로 낮은 값에 경락되지만 소매점에서는 아직도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높은 값을 받고 있다. 이 유통과정도 시정이 되며 낮은 가격으로 경락되었으면 소매점에서도 낮은 값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점도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과 같은 젓소고기 전문 판매점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뒤 따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2. 젓소고기 시장을 지켜야 한다.

가. 국내산 쇠고기중 젓소고기 비중이 높다.

'93년 9월 현재의 한육우 두수는 2백 31만두이며 젓소는 54만 5천두다. 한육우중에는 젓소 숫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젓소 두수는 전부 암소인 것이다. 도살율을 보면 젓소 암수를

합하여 30%선에 이르고 있다. 즉 국내산 쇠고기의 30%를 젓소고기가 차지하고 있는것이다. 여기에 한우보다 젓소가 도살체중이 높은 것을 따진다면 순 젓소고기의 비율은 30%선을 넘어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우는 역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산간지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이제는 고기용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젓소는 우유생산이 주 목적이고 또 우유소비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젓소 두수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결국 국내산 쇠고기중 젓소비중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이런 젓소고기를 현재와 같이 사람이 먹지 못하는 쇠고기와 같은 인식이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

젓소고기값이 제값이 되어야 낙농가들도 경영여건이 좋아질 수가 있다. 복합경영에 대하여는 비판의 소리도 있지만 많은 낙농가들은 자체에서 생산된 숫송아지를 비육을 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에서는 노페우만을 비육하는 비육업자들도 있다. 이렇게 하여 젓소고기의 값을 제대로 받게 되어야 비육은 하지 않더라도 숫송아지, 그리고 노페우의 값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 수입육은 젓소고기 시장을 잠식한다.

수입쇠고기는 우선 젓소고기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 수입육의 품질은 젓소고기와 대등함으로 수입육의 확대는 젓소고기의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고급육의 수입, 냉장육의 수입으로 한우고기를 위협하게 된다. 이미 육류등급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우육과 젓소고기와의 가격차가 심하여지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젓소고기의 질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아직은 젓소고기 맛과 수입육의 맛을 알고 있지 못하다. 젓소고기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먹어서 맛을 들여 놓으면 수입육이 과고 든다고 하여도 수입육을 선호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최소한 젓소고기가 수입육보다는 좋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다. 젓소고기의 질을 향상하여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30%를 점하고 있는 것이 젓소고기다. 앞으로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게 된다. 또 만약의 경우 우유소비가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젓소들이 비육우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는데 까지 생각을 하여야 한다. 일부 낙농가는 초산우에 한하여 순산을 위하여 한우정액을 주입 일대잡종을 생산하여 비육하고 있기도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와같이 젓소고기를 현재와 같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길러서 고기소로 출하를 계속한다면 젓소고기는 계속하여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우에 대한 비육우 프로그램들이 연구기관에서 또는 사료회사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완전하지도 않고 또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한우육의 고품질화를 위한 사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한우 비육농가들도 나름대로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젓소비육에 대하여는 노력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므로 육질보다는 체중 즉 증체위주로 사양하고 있는 것이다. 또 폐우에 있어서는 별도 비육시키지 못하고 순간적인 판단에서 그대로 출하하고 있으므로 이 여윈 폐우가 젓소 전체를 대표하는 양 젓소고기는 질이 좋지 않다는 평을 내

젓소 사양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더 좋은 고기를 생산토록 하여야 하며 폐우도 목장여건상 비육이 어려우면 폐우전문비육농가가 출현하여 몇 달이라도 집중 비육시켜서 출하한다면 고기질도 좋아져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육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국내산 쇠고기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쇠고기를 공급한다는 뜻에서도 젓소비육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본다.

리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젓소 사양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더 좋은 고기를 생산토록 하여야 하며 폐우도 목장여건상 비육이 어려우면 폐우전문비육농가가 출현하여 몇 달이라도 집중 비육시켜서 출하한다면 고기질도 좋아져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육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국내산 쇠고기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쇠고기를 공급한다는 뜻에서도 젓소비육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본다.

한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소인 동시에 또 농민들의 소득원으로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국민들에게 익숙된 한우고기를 공급하는 뜻에서 계속 지도 육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젓소 비육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국제 경쟁력은 쇠고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유에도 마찬가지다. 젓소비육으로 낙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된다면 그것은 곧 우유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이 된다. 아직은 가공산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곤란은 하지만 폐우는 가능하면 가공용으로 돌려가공을 한다면 그 가치를 향상시킬 수도 있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젓소고기를 새로 인식하는데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젓소고기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낙농가, 비육농가 그리고 정부도 신경을 써야 하겠다.

라. 젓소고기 직판장도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젓소고기는 도매시장에서는 낮은 값으로 경락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낮은 값으로 젓소고기를 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젓소고기를 먹고 있으면서 한우고기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젓소고기 직판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젓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길을 막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패우 등 젓소값이 더 떨어질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도 있다. 그러나 젓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것도 점차 사라지고 있어 머지않아서 전부 사라질 것이므로 우려, 좌절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도살장에서 도살 후 검인도 한우고기에는 붉은 도장을 그리고 한우외에는 청색도장을 찍도록 되었다.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지만 곧 정착되리라고 본다. 또 소비자들이 속는다고 생각되면 속는 것보다 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수입육 전문점을 찾게도 된다.

한우육전문점이 생기기 전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정육점에서는 부정육을 판다는 인식으로 수입육 전문점을 찾은 관계로 수입쇠고기의 소비가 전년대비 26%씩 신장되었던 것이다. 또 서울시민을 비롯하여 도시인들은 한우 고기인줄 알고 사 먹고 있는 것이 대부분 젓소고기인데도 고기맛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을 보더라도 젓소고기의 질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나쁜 것은 아니다. 젓소고기인줄 모르고 비싼 값을 주고 사먹은 것이 젓소고기로 알고 싸게 사먹게 하자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젓소고기유통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본다. 또 소비자단체들의 활동이 점차 강화되고 활발하여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에서 비정상적인 젓소고기유통을 파헤친다면 그 타격 또한 커질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젓소고기가 품질이 낮은 고기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없을 때 그틈을 수입쇠고기가 파고들 때 대책이 없게 된다.

국내산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있을 때 수입쇠고기는 발을 내 딛기가 어렵게 된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젓소고기 직판장을 설치하라고 하면 찬성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낙농가를 위하여 조직한 단체에서 착수하여 젓소비육농가들까지 이에 가세한

젓소고기의 품질에 대한 홍보도 하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젓소고기판매장이 한 곳도 없는 상태에서는 홍보를 하였을 때 젓소고기를 어느 곳에서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할 때 대답이 궁색하여지게 된다. 수입쇠고기가 소비자를 공략하기 전에 국내산 쇠고기의 기반이 소비자에게 굳건히 다져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한우고기직매장과 같이 젓소고기 직판장도 설치되어야 한다.

다면 그래도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젓소고기의 품질에 대한 홍보도 하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젓소고기판매장이 한 곳도 없는 상태에서는 홍보를 하였을 때 젓소고기를 어느 곳에서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할 때 대답이 궁색하여지게 된다. 수입쇠고기가 소비자를 공략하기 전에 국내산 쇠고기의 기반이 소비자에게 굳건히 다져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한우고기직매장과 같이 젓소고기 직판장도 설치되어야 한다. 한우고기직판장에서 젓소고기도 팔면 되지 않느냐는 이론이 대두될 수 있으나 한우고기직판장에서 젓소고기를 판매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식욕으로 인하여 젓소고기는 절대로 사지않고 분에 넘치지만 한우고기를 구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젓소고기만을 판매하는 직판장이 있어야 한다.

3. 젓소고기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그간 정부에서는 수입육확대판매에 열을 올렸으며 지난 1년간은 다행히 한우고기에도 신경을 써서 한우고기의 소비가 늘어나고 또 한우전문점의 출현으로 소비자들이 한우고기에 접하게 되고 또 한우맛이 되살아나면서 한우열풍이 일어났다. 그런관계로 수입육 일면도로 급신장 하던 것이 수입육의 소비는 둔화된 반면 한우육의 소비는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한우값,

물가에 밀려 수입육에 대한 정책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 '93년도 후반기 쇠고기수급대책발표에는 수입육 확대판매를 위한 대책이었다.

국내산 쇠고기의 30%선에 이르고 있는 젓소고기에 대하여는 그간 정부에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3년전 우유잉여시 정상적인 젓소를 도살할 때 보상을 주며 도살을 장려하였으나 이는 우유수급을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그의 젓소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난 일년간 한우종합대책을 강구하였지만 한우만을 논의하였지 젓소고기에 대한 것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젓소고기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어야 한다. 수입쇠고기는 매년 증량 수입되고 있다. 또 낙농제품들도 속속 개방되고 있다. 낙농가들의 경영여건은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다. 그간 낙농가들은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금년은 유질에 의한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 낙농가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고 노력과 투자를 위한 금전적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낙농가들은 세계의 흐름이라 생각하고 다 받아들였다. 육류등급제가 실시되면서 젓소고기의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으면서도 낙농가의 몫에는 두당 1백여만원의 수익 감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낙농가들은 그것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낙농여건이 어렵다고 낙농가들은 원유대인상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낙농가의 뜻은 무시하고 과거에는 한번도 없던 시유값만을 인상하여 주었던 것이다. 결국은 원유대는 유질에 의한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원유대인상이 아닌 노력의 대가조로 소폭 반영하여 주는데 그쳤던 것이다.

몇년간은 다행히 원유가 부족하여 낙농가들은 유업체로부터의 불이익은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제품들이 속속 개방되고 있으며 몇년간 원유부족 현상으로 젓소 암송아지값이 수송아지값을 상회하면서 비육되어 되살리던 암송아지들이 비육되어 고기소로 출하되지 않고 젓을 생산할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어 이 처녀소들이 젓을 생산하게 되면 그간 부족하였던 원유가 잉여될 우려마저 내포하고 있어 앞으로의 낙농여건은 더 어려워지리라는 예측이다. 이런때이므로 정부에서도 낙농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젓소고기에 대하

정부의 국내산 쇠고기 정책에 반드시 젓소기도 반영하여 주기바라며 소값 안정대책 등에도 젓소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우값을 안정(?)시킨다고 하여 한우값 떨어뜨리기 작전에 집착하다보니 젓소비육우는 값이 폭락하고 있다. 한우값과 젓소비육우값을 동시에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비싼 한우값에 초점을 맞추어 값정책을 세우고 있으므로 젓소비육우 값은 적정가격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어야 한다.

첫째 젓소송아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송아지가격 지지 제도를 도입 송아지가격의 안정을 꾀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이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젓소 수송아지가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참여하는 농가에 한함으로 농민들의 자구노력을 함양하는 계기도 된다.

둘째 젓소고기 직판장 설치에도 한우고기 전문점 설치에 지원하는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한우고기는 인기품목이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많지만 젓소고기 직판장설치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낙농가 생산자단체들까지 외면할 수 있으므로 한우직판장 보다 더 좋은 조건을 부여하여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젓소고기의 품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사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동시에 젓소고기 홍보에도 정부에서 주도하여 주기를 바란다.

넷째 정부의 국내산 쇠고기 정책에 반드시 젓소기도 반영하여 주기바라며 소값 안정대책 등에도 젓소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우값을 안정(?)시킨다고 하여 한우값 떨어뜨리기 작전에 집착하다보니 젓소비육우는 값이 폭락하고 있다. 한우값과 젓소비육우값을 동시에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비싼 한우값에 초점을 맞추어가격정책을세우고 있으므로 젓소비육우 값은 적정가격을 유지하기가 어렵다.